

低出產水準과 강한 男兒選好觀이 社會에 미치는 影響 — 姓·年齡別 人口 構造의 變化를 중심으로 —

金 泰 憲
(韓國敎員大學校 副敎授)

《目 次》

I. 序 論	Ⅲ. 人口構造의 變化가 社會에 미치는 影響
Ⅱ. 姓·年齡別人口構造의 變化(1960-2021)	Ⅳ. 結 論: 人口政策의 方向과 그效果

I. 序 論

1960년에 연 3% 증가하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1% 증가에 그쳤다. 인구증가의 감소 속도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속화 되었다. 1981년 당시 수립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목표 인구증가율을 1985년 연 1.53%, 2000년대에 연 1%, 그리고 2050년에 최대인구 61백만명에서 제로 성장율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출산수준의 급속한 감소로 1985년에 계획 인구증가율을 훨씬 하

회하는 1.25%를 기록하였다. 또한 1986년에 수정하여 제6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한 목표 인구는 연 1% 증가 수준을 1993년에 달성하고, 2023년에 최대 인구 52.7백만명에서 제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출산수준의 감소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서 인구증가율은 1988년에 1%에 도달하였다. 제7차 5개년 계획을 위한 기초인구인 1990년의 인구성장율이 0.93%이었으며, 2021년에 총인구 50.6백만명에서 성장율이 『0』에 도달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조사통계국, 1981 및 1986; 통계청, 1991 참조).

급속한 출산수준의 감소와 이 현상의 지속은

* 이 논문은 199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인구압박을 완화시켜 주고,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약속하는 등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성공한 예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성장의 속도가 빨리 둔화될수록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욱 심해지고, 심하면 연령계층별 단절 현상까지도 유발하게 되며(Freedman, 1986 : 81; Weeks, 1986 : 233-240), 이러한 인구현상의 변화는 사회 모든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우기 남아 선호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동시에 출산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장래 사회의 유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강한 남아선호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수준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성 연령별 인구구조의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써 인구증가억제에만 중점을 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이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과잉인구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II. 姓·年齡別 人口構造의 變化 (1960-2021)

가. 연도별 인구구조의 변화

1990년의 우리나라 인구는 42,869천명이었다. 1960년의 인구가 25,012천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0년 동안에 약 1,800만명이 늘어난 셈이다. 『베이비 붐』으로 연간 3%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던 1960년 이후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과 소자녀관의 형성으로 인구증가율은 1990년에 0.93%까지 하락하였다. 그 동안 합계출산율은 6.0명에서 1990년에는 대체출산수준을 하회하는 1.63명으로 낮아졌다(표1참조).

출생아수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표1참조). 1960년에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42.3%였으

며,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4.8%,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전체의 2.9%에 불과하였다. 이때의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가 77.3으로 노년부양비(5.3)를 합하여 총부양비는 82.6이었다. 그러나 출생아수의 정체 내지 감소로 유소년인구의 구성비도 정체(1970년까지) 내지 감소하게 된 반면에 유소년 인구의 편입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5.0%에 이르렀다.

1990년의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가 각각 37.3과 7.2로서 총부양비는 44.5가 되었다. 1960년 인구에 비하여 유소년부양비는 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나 노년부양비는 1.9 포인트 증가하였다. 1960년에 비하여 1990년 인구는 생산연령인구가 비대하여졌으므로 유소년과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낮아져서 부의 축적이 더욱 유리해진 인구구조가 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용된 장래인구현상의 변화를 보면 <표 1>에서 2000년의 우리나라 인구는 연증가율 0.77%(360천명 증가)인 46,78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추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2021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최대 50,586천명에서 연증가율이 『0』에 도달(정확히는 0.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하는 2021년까지 31년 동안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는 유소년의 경우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 15.8%로 되며, 생산연령인구는 2000년에 72.0%로 최대에 이른 후 서서히 감소하여 2021년에 71.1%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 18.4%에 이를 것이다. 유소년부양비는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 22.2로 되며 반대로 노년부양비는 1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총부양비는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2000년에 38.8까지 낮아졌다가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40.6이 될 것이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연도별 0-4세 인구의 성비는 107 108정도를 유지하였다.〈표 1참조〉 이 수준도 세계 평균 수준인 105보다 2~

3포인트 정도 높았으나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0-4세 인구의 성비가 112.0으로 전보다 4~5 포인트나 높아졌으며 세계 평균수준인 105에 비하여 무려 7포인트나 높았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에

Table 1. Changes of Korean Population Indicators, 1980-2021

Indicators	1960	1970	1980	1990	2000 ⁵⁾	2010 ⁵⁾	2021 ⁵⁾
Total population ('000)	25,012	32,241	38,124	42,869	46,789	49,683	50,586
Pop. growth rate (%)	3.00	2.00	1.57	.93	.77	.37	-.01
Annual growth pop.('000)	709	714	584	399	360	184	- 5
Age structure (%)							
0-14 Years	42.3	42.1	34.0	25.8	21.2	19.1	15.8
15-64 Years	54.8	54.6	62.2	69.2	72.0	71.5	71.1
65 Years & over	2.9	3.4	3.8	5.0	6.8	9.4	13.1
TFR (persons)	6.0	4.5	2.7	1.63	1.63	1.63	1.63
Dependency ratio (%)							
Child DR ¹⁾	77.3	78.2	54.6	37.3	29.4	26.8	22.2
Old-age DR ²⁾	5.3	5.7	6.1	7.2	9.4	13.1	18.4
Prop. of women 15-49 (%) ³⁾	46.9	46.7	52.7	56.9	57.7	52.5	46.8
Prop. of women 20-34 (%) ⁴⁾	23.6	21.9	24.9	29.0	26.3	21.2	18.5
SR at age 0-4	108.0	108.1	107.2	112.0	107.0	107.0	107.0

Notes : 1) Child dependency ratio = $\frac{P_{0-14}}{P_{15-64}} \times 100$

2) Old-age dependency ratio = $\frac{P_{65+}}{P_{15-64}} \times 100$

3) Prop. of women aged 15-49 = $\frac{\text{Female pop. aged 15-49}}{\text{Total female population}} \times 100$

4) Prop. of women aged 20-34 = $\frac{\text{Female pop. aged 20-24}}{\text{Female pop. aged 15-49}} \times 100$

5) Projected population.

Sources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1988) *1960-1985 Estimated Population*,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1) *Projected Population (1990-202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 정상적인 출생시와 비교하여 남아가 약 5% 정도 더 태어난 결과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성비가 다시 107로 안정되므로 이 표에서는 1990년의 높은 성비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이론적인 가정 하에서 장래 인구를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성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표 3에 대한 기술 내용 참조).

나. 인구구조 변화의 요인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사망력의 변화와 차별사망력이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영유아사망률의 감소로 유소년인구가 증가하며, 일정한 기간(15년정도)이 지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성별 차별사망력은 성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사망력의 저하나 차별사망력의 지속이 성·연령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사망수준이 낮아지면서 감소하고 사망수준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흐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평균수명이 70년을 상회하였으며 영아사망률도 출생아수 1000명중 10명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망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고, 출산력의 변화와 출생시 성비의 변화에 의한 성 연령별 인구구조의 영향을 정리하였다.

1) 출산 수준의 감소

합계출산율(TFR)은 1960년에 6.0명이었으나 1990년에 대체수준 보다 훨씬 낮은 1.63명을 기록하고 있다(표 1 참조). 1980년에 합계출산율이 2.7명이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 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였다. 출산수준이 대체수준 이하에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피임실천자중 불임수술의 비중이 높고, 인공임신중절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초혼연령의 상승과 임신과 출산이 가장 왕성한 20대와 30대 초의 미혼비가 크게 상승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수행으로 피임실천율의 상승은 물론 피임실천자 중 불임수술이 약 50%에 도달(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73)하였으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me, 1990 : 4).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또 하나의 원인은 인공임신중절이었다. 1988년의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을 때 합계인공임신중절률도 동일한 1.6회로 추정되었으며(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122), 1991년에는 합계인공임신중절률이 1.9회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통계청, 1992a : 67).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명)에 도달한 1984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한 것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 계층인 20-24세와 25-29세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연령층이 합계출산율의 감소(2.1명에서 1.6명으로)에 기여한 정도가 81.9%에 도달한 것(김태현, 1990 : 78-79)도 이들 연령층에서의 인공임신중절률이 높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Lee & Cho, 1992 : 28-29).

여자의 초혼 연령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상승하였다. 1970년대에 0.8년의 증가를 보였던 여자의 초혼연령은 1980년 24.1세에서 1990년에는 1.4년이 늘어난 25.5세가 되었다(홍문식 외, 1991 : 80). 초혼 연령의 증가는 임신 출산이 가장 왕성한 연령 계층(20-24, 25-29 및 30-34세)에서의 미혼 인구 구성비를 높였다. 20-24세 여자의 미혼비가 1970년의 57.2%에서 1980년에 66.1%로 8.9%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1980년에 들어와서는 이미 상당히 높아진 미혼비가 10년 사이에 다시 14.6% 포인트 상승하여 1990년에는 80.7%에 이르렀

다. 25-29세에서도 1970년대 증가분 4.4% 포인트에 비하여 1980년대에는 그 배에 가까운 7.7% 포인트나 늘어나서 1990년의 여자 미혼비는 21.8%로 되었다. 30-34세에서도 미혼비의 절대값은 낮을지라도 1980년대에는 1970년대 증가분(1.3% 포인트)의 두 배에 해당되는 2.5% 포인트 증가하여 1990년 여자 미혼비가 5.2%에 이르렀다(Lee & Cho, 1992: 41, Table 4.10 참조). 이러한 현상은 1960년 전후의 『베이비 붐』 때 태어난 여자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인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혼 대상인 4~5세 연상 남자들과의 성비 불균형(표 9참조)이 심화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출생아수는 여자 1인당 출생아수와 가임연령기의 여자인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1인당 출생아수가 감소할지라도 1960년 전후에 늘어난 여자인구가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1985년 전후 부터 총 출생아수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임연령인구의 구성비가 2000년(57.7%)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총 출생아수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1.6명 까지 낮아진 현재의 출산이 집중되어있는 20-34세의 인구구성비는 1990년(29.0%)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가 없는 한 - 합계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 총 출산자녀수는 앞으로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성 선별 출산

낮은 이상자녀수와 강한 남아선호관의 잔존이 성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고 출산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30세 미만 여자의 이상자녀수가 1980년대 후반에 1.8~1.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1992a : 302-303). 이상자녀수 자체가 대체출산 수준(2.1명 정도)보다

낮았으며, 미혼비의 증가와 불임율의 경우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합계출산율 1.6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겠다.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남아선호관이 과거에는 출산수준을 높였으나 출산수준이 극히 낮아진 198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출산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상자녀수가 2명 미만이고 강한 남아선호 현상이 남아있을 경우 남아가 출산하게 되면 단산하고, 여아일 경우 남아의 출산시까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한 소자녀관의 바탕하에서는 남아출산까지 출산아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자녀수보다 많이 넘지않은 정도에서 남아출산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남아선호에 따른 출생시 성비를 높이게 되고, 평균 출산수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표 2〉에서 남아출산 후 단산할 경우 이론적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를 정리하여 놓았다. 이때 고려한 가정은 모의 인구를 16명으로 하였고, 출생아의 성비를 100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아가 출생하면 단산하고, 여아일 경우에는 계속 임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넷째가 딸일 경우 단산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2〉에 의하면 16명의 어머니가 출산한 총출생아수는 30명이었으며, 자녀수는 남녀 각각 15명씩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그런데 남아에 대한 집념이 강하고 소자녀관이 강할 수록 출산아수를 제한하면서 남아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자녀수(1.8-1.9명)에 해당되는 둘째아도 여아일 경우에 셋째 출산시 남아를 출산하고 단산을 할 수 있다면, 〈표 2〉에서 셋째아 중 여아 2명이 남아가 되고, 넷째 출산이 없게 된다. 이 때 총출생아수는 28명에 남아가 16명, 여아가 12명으로 성비가 133이 되며, 1인당 평균 출산아수는 1.75명으로 〈표 2〉의 경우(1.875명)보다 0.125명이 감소하게

Table 2. Hypothesized Number of Births by Order under the Assumptions on the Childbearing after Having a Boy

- (Assumptions) 1. No. of mother:16.
 2. Sex ratio at birth:100.0
 3. Cessation of childbearing after having a boy.
 4. The maximum number of children is four.

Birth order	No. of births	Childbearing for another child
1st birth	8 boys	Cessation
	8 girls	Continuation
2nd birth	4 boys	Cessation
	4 girls	Continuation
3rd birth	2 boys	Cessation
	2 girls	Continuation
4th birth	1 boy	Cessation
	1 girl	Cessation

- (Results) 1. Total no.of births :30 children.
 2. Sex ratio at birth :100.0
 3. Average no. of births per mother :1.875 children.

된다. 이와 같이 성 선별이 가능할 경우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성 선별은 출산수준을 낮춰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Ⅲ. 人口構造의 變化가 社會에 미치는 影響

1990년 인구를 기준으로 추정한 장래 인구 전망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1년까지의 인구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추정 인구는 50,586천명이고 인구증가율은 -0.05%로서 『0』성장인구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표1 참조, 통계청, 1991:4). 그리고 자연 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할 때의 인구를 선진국형 인구로 인정하고 선진국의 인구가 『0』성장에 도달하는 시기와 비교하고 있다 (통계청, 1991:7).

인구가 이미 과밀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우

리나라 인구의 증가속도가 급속히 낮아지고, 최대인구도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성공이라고 하겠다. 새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다는 것은 인력관리나 주택정책 등 사회 경제정책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현상의 변화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며, 감소할 때에는 장려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예를 들어 한 세대 또는 두 세대)이 지난 다음에 증가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인구의 변화는 경직성이 강하다.

1962년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수행되기 시작한 이래 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하기(2021년)까지 60여 년이 걸리는 것도 인구변화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6.0(1960년)에서 대체수준인 2.1(1984년)

까지 낮아지는 데 24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0』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규모의 감소나 인구증가율의 감소현상을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는 강력한 인구장려정책이 채택된 후 위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의 경직성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전망을 장기간(예를 들면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함으로써 장래 인구현상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통계청이 1991년에 2021년까지 추정된 장래인구추계를 2090년까지 연장하여 우리나라 인구현상을 조망하였다(표 3참조).

〈표 3〉은 1990년의 인구현상을 기준으로 하고 출산력과 해외인구이동은 동일하고, 출생시

성비는 1995년 부터 107로 일정하며, 사망률은 평균수명이 남자 75세, 여자 80세까지 상승한다는 가정(통계청, 1991 참조) 하에서 100년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경에 약 5100만명 수준에서 최고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출산수준이 대체수준(2.1명)을 하회하는 1.63명을 1990년 이후 매년 적용한 결과이며 인구증가율 약 1% 수준에서 감소로 바뀔 때 까지 약 30년이 경과할 것이다. 그 후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속도는 더욱 빨라져서 2050년 경 이후에는 매년 1% 이상씩 감소하게 된다. 즉, 합계출산율 1.63명일 때 인구성장 속도가 1%의 증가에서 1%의 감소까지 2세대(약 60년)가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50년대에 1990년의 인구 규모 이하로 낮아져서 2060년에는 4000만명 미만(39,339천명)으로 예상되며, 그 후 다시 한 세대 후인 2090년에

Table 3. Projected Population of Korea : 1990-2090

Year	Total population		Age distribution			Dependency ratio		
	('000)	Growth rate(%)*	0-14	15-64	65+	Total	0-14	65+
1990	42,869	0.87	.258	.692	.050	44.5	37.3	7.2
2000	46,789	0.60	.211	.720	.068	38.8	29.4	9.4
2010	39,683	0.18	.191	.715	.094	39.9	26.8	13.1
2020	50,578	-0.11	.160	.715	.125	39.9	22.4	17.5
2030	50,014	-0.48	.145	.667	.183	49.9	22.4	27.5
2040	47,648	-0.92	.145	.627	.228	59.5	23.1	36.4
2050	43,452	-0.99	.137	.619	.244	61.6	22.2	39.4
2060	39,339	-1.04	.141	.621	.238	60.9	22.7	38.3
2070	35,463	-1.06	.140	.614	.246	62.8	22.8	40.0
2080	31,910	-1.07	.137	.618	.245	61.9	22.2	39.7
2090	28,676	-	.140	.618	.242	61.8	22.7	39.1

Sources : 1) 1990-202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1) *Projected Population (1990-2021)*.

2) 2030-2090: Extension of the NSO projected population(1990-2021) using the same assumptions.

Note :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s for the next 10 years from the based years.

는 3000만명에도 못미치는 28,676천명으로 추정하였다.

인구규모의 증가와 감소가 교차하면서 인구의 절대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인구의 연령구조도 크게 바뀌게 된다. 피부양인구인 0-14세 인구는 출산수준의 감소로 2020년에는 16%로 감소하였고, 총 인구가 연 1%씩 감소하게 되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13.7%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5% 수준(1990년)에서 2020년에 12.5%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총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24.4%에 다다르게 된다. 그 후의 인구구조는 과거의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아 약간씩 변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절대규모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년인구의 증가와 신규노동력 공급의 감소, 그리고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감소와 남아선호에 따른 결혼시 성비 불균형의 심화와 지속, 차별출산력의 지속에 따른 인구 자질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가. 노년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부담의 급증

사망률의 감소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는 노년인구의 증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출산수준이 높은 시기에서는 영유아 내지 청장년 층의 인구가 비대하므로 노년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출산수준이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게 되고, 비교적 비대한 연령 층인 청장년 층의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노년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 인구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1>에서 보면 우리나라

의 노년인구 구성비는 1960년에 2.9%이었으며 그 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도 3~4% 수준에 머물렀으며, 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1990년에 5%가 되었다. 그러나 신규 출생아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청장년 층의 인구가 노년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 6.8%, 2020년에는 12.5%에 도달하게 된다. 그 후에는 1960년 전후의 『베이비 붐』 시절에 태어난 인구가 노령(65세 이상)에 도달하면서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10년 간에 5.8% 포인트나 늘어나서 2030년에 18.3%로 되며 그 수준은 계속 증가하여 2050년 이후에는 총인구의 24% 내외를 점하게 될 것이다.

1990년에 선진국의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구성비가 12.1%로 우리나라의 5.0%에 비하여 훨씬 높고, 우리나라의 노년인구 구성비가 12%대에 도달하는 것은 2020년 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령화 현상은 선진국에 비하여 늦고, 그 수준도 낮으므로 노년인구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대한민국정부, 1992 : 28; 통계청, 1991; 홍문식 외, 1991 : 118).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노령화가 진행되었으므로 앞으로 노년인구 구성비가 높아지는 것도 서서히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짧은 기간 내에 노령화에 진입하고, 과거의 높은 출산수준과 현재의 낮은 출산수준의 지속으로 청장년 내지 노년층의 인구를 비대하게 하므로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선진국들 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게 된다.

<표 4>에서 선진국의 인구노령화 속도와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를 비교하였다. 프랑스나 스웨덴의 인구는 19세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상회하는 노령인구의 범주에 접어들었으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20세기 전반기에 노령인구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Table 4. The Speed of Population Aging in Selected Developed Countries

Countries	Years attaining the specified percentage of the aged among the total population			
	7%	10%	14%	From 7 % to 14%(years)
Korea	2001	2012	2023	22
Japan	1970	1985	1994	24
France	1865	1940	1980	115
Germany	1930	1955	1975	45
Sweden	1890	1950	1975	85
United Kingdom	1935	1960	1985	50
U.S.A.	1945	1975	2010	65

Sources : (Korea) Annual data of Tabel 3.

(Others) Kono, Shigemi (1992) "The consequences of fertility decline in Japan:cultural, social,and economic implications", *Impact of Fertility Decline on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 Strategies*, pp. 61-80,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년인구 구성비가 14%에 도달된 시기는 대체로 1980년 전후였으며, 미국이 가장 늦어서 2010년 경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70년에 노년인구 구성비가 7%였으나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어서 24년 후인 1994년에 14%의 노년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24년)을 제외하면 선진국들의 경우 노년인구가 7%에서 14%까지 늘어나는 데,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으며, 스웨덴은 85년, 그 외 나라들은 45년에서 65년까지 소요되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의 급속한 출산율의 감소로 노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된 것은 선진국 집단에서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통계청의 추정 결과와 그 연장 자료(표 1 및 표 3참조)에 의하면 2001년에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총인구의 7%에 도달하게 되며, 2012년에 10%를 넘어서

2023년에 총인구의 14%가 노년인구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때 7%에서 14%까지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데 2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2분의 1 내지 5분의 1에 해당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전체 노인에 대한 노인 단독가구의 비가 1974년에 8.4%이던 것이 1985년에 23.4%로 증가하고 있으며(윤종주, 1991)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노년인구의 급증은 노인복지수요를 증대하게 된다. 전통적인 노인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산업화 및 도시화, 출산 수준의 감소에 따른 핵가족화와 가족 규모의 축소등으로 자녀들이 노인 부양에 대한 태도가 변함에 따라 장차 사회적 노인부양의 책임이 늘어나게 된다.

노년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늘어날 지라도 유소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극소해

지므로 총 부양비는 2020년 경까지 40포인트 미만으로 낮아지고, 그 후에 노년부양비의 증가에 따라 총부양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 3 참조). 그러나 노년부양부담은 가족 중심의 부담에서 사회 중심의 부담으로 이전되므로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의 재정적 부담은 노인 보호 주체의 변화와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또한 노년부양부담에는 의료부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유소년 부양부담에 비하여 20% 정도 높은 것이 선진국의 예이므로 노년부양비의 증가에 의한 총부양비의 증가는 사실상 더 높은 사회적 부양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 71-75; 홍문식 외, 1991 : 227-233; E. H. Choe, *et. al.*, 1992. 참조). 이 때의 노인 부양부담은 단순한 생활비 부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 문제나 정서적 또는 사회적 문제까지 결부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주학중, 1986).

나. 신규노동력의 공급 감소

우리 나라의 노동력 수요 예측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며(구성열, 1990; 박래영, 1985 등) 노동력 규모가 인구증가와 함께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장래 노동력 공급은 양적으로 과잉될 염려는 있어도 과소공급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인적 자원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력활용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성열(1990 : 69-71)은 1966년부터 198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로서, 연령, 학력별 노동력 수요를 2000년까지 전망하고 적어도 인구의 절대 감소가 있기 전까지는 양적 증대보다는 자질 향상 및 그 활용에 보다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별 인력의

초과 공급 전망에서 전산업에 걸쳐 남여 합계 노동력의 공급은 남자의 경우 1996년, 여자의 경우 1999년까지 과잉 공급되다가 그 이후에는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것은 해외 투자 등을 통한 해외 인력의 활용으로 타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하였다(구성열, 1990 : 57-67).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남자 중심,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자노동력의 활용과 정년 등으로 현장을 떠나는 노동력의 재활용, 그리고 학력수준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의 재조정 등으로 기존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공급은 필요에 따라 쉽게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까지는 성장과 훈련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장기간에 걸친 전망과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 5〉은 생산연령인구를 3개 연령 계층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5-24세 연령계층은 생산연령계층이기는 하지만 교육 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산연령의 전기 단계라고 한다면, 25-34세는 가장 왕성한 노동력 공급원이 되고 35세 이후의 연령 계층에서는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총 생산연령인구의 추세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비대한 유소년 층의 유입으로 2000년 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년층의 노령화와 1980년대의 낮은 출산수준에서 태어난 유소년인구가 생산연령인구에 유입되는 2000년 경부터는 증가 추세가 급속히 둔화되어 2020년 경 부터 생산연령계층의 절대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도는 급속히 증가하여 2030년대 부터는 연 평균 1%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경 부터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할지라

Table 5. Trend of Economically Productive Aged Population by Year and Age Group, 1960-2090

	15-24Yrs.		25-34Yrs.		35-64Yrs.		Total(15-64)	
	Population ¹⁾	% ²⁾	Population ¹⁾	% ²⁾	Population ¹⁾	% ²⁾	Population ¹⁾	% ²⁾
1960	4,741(34.6)	2.08	4,489(32.7)	0.19	4,477(32.7)	4.74	13,707	2.50
1970	5,838(33.2)	3.89	4,547(26.0)	2.02	7,192(40.9)	2.79	17,604	2.98
1980	8,613(36.3)	.16	5,598(23.6)	4.03	9,502(40.1)	2.76	23,713	2.24
1990	8,753(29.5)	-1.25	8,374(28.2)	.30	12,520(42.3)	3.26	29,647	1.27
2000	7,721(22.9)	-1.73	8,631(25.6)	-1.23	17,353(51.5)	2.09	33,705	.53
2010	6,493(18.3)	-.03	7,633(21.5)	-1.73	21,379(60.2)	.84	35,505	.18
2020	6,474(17.9)	-1.56	6,421(17.8)	-.03	23,252(64.3)	-.82	36,147	-.81
2030	5,539(16.6)	-1.13	6,403(19.2)	-1.57	21,427(64.2)	-1.02	33,369	-1.10
2040	4,945(16.6)	-.50	5,471(18.4)	-1.14	19,347(65.0)	-1.11	29,763	-1.05
2050	4,704(17.5)	-1.61	4,880(18.1)	-.51	17,310(64.4)	-.91	26,894	-.96
2060	4,006(16.4)	-.78	4,639(19.0)	-1.62	15,798(64.6)	-1.11	24,443	-1.15
2070	3,706(17.0)	-.94	3,944(18.1)	-.79	14,137(64.9)	-1.08	21,787	-.99
2080	3,373(17.1)	-1.44	3,644(18.5)	-.95	12,687(64.4)	-.99	19,704	-1.07
2090	2,922(16.5)	-	3,314(18.7)	-	11,490(64.8)	-	17,726	-

Notes :1) Numbers in () are proportions to the total population (15-64years).

2) % (growth rates) are the average annual rates for the next 10 years from the based years.

Sources :1) 1960-1980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1988) *1960-1985 Estimated Population*,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2) 1990-202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1) *Projected Population (1990-202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3) 2030-2090 :Extention of the NSO projected population (1990-2021) using the same assumptions.

도 생산연령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2020년 이후에는 노동력의 절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노동력 공급의 시차를 감안할 때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노동력 공급 상의 문제가 심화된 상태이며, 이 문제는 새로운 노동력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시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총 생산연령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2020년대에 노동력 구조의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준비는 아동의 성장 기간(15년)과 교육 기간을 고려하여 20여년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2000년 경에는 20년 후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출산조절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를 연령 계층별로 구분하여

보면 노동력 부족에 따른 대책 시기는 훨씬 앞당겨지게 된다. 즉, 주 노동력 공급 연령 계층을 25-34세라고 한다면 이 연령층의 절대 인구 감소가 2000년 경부터 시작되므로 20여년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1980년대 부터 2000년대의 노동력 수급에 필요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부족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저축율을 낮추게 되며, 나아가서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Kono, 1992 : 63-64)을 고려한다면 장래 노동력 부족에 대한 추정과 적기에 필

요한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차별출산력의 지속에 따른 인구자질의 저하

우리나라의 출산 수준은 1960년 이후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는 모든 집단에서 똑같이 감소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사회의 특성에 따라 출산수준의 변화정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력에 관한 연구는 특성별 출산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한 사회

Table 6.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by Year, Place of Residence and Educational level of Women: Ever-Married Women Aged 35-39, 1974-1990

	1974 ¹⁾	1976 ²⁾	1984 ³⁾	1987 ⁴⁾	1990 ⁵⁾
All (35-39Yrs.)	4.39	4.07	2.96	2.60	2.35
1. Place of residence					
Urban	3.76	3.55	2.75	2.45	2.24
Rural	5.01	4.60	3.53	3.01	2.79
(R/U)	(1.33)	(1.30)	(1.28)	(1.23)	(1.25)
2. Educational level of women					
Primary or less	4.64	4.38	3.37	3.01	2.76
Middle sch.	3.70	3.43	2.89	2.63	2.38
High or higher	3.10	3.07	2.50	2.23	2.08
(Primary/High)	(1.50)	(1.43)	(1.35)	(1.35)	(1.33)

Sources :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World Fertility Survey: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pp.89-93.

2) Park, B. T. *et al.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9, pp. 113-124.

3) Cho, D. H *et al., The 1985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1985, pp. 31-32.

4) Moon, H. S. *et al. The 198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9, pp. 122-128.

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4, Fertility*.

의 출산수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출산수준의 조절이 필요한 인구정책에서도 출산수준을 낮추어야 할 집단이나 높여야 할 집단을 밝히고, 그 집단에 맞는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그 사회의 적정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김태현, 1990 참조).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혼 연령이나 피임과 같이 직접 영향을 주는 중간변수가 있고 이들 중간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생활 수준과 관련되는 변수로 모의연령과 거주지 등 2가지의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의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연령이 35-39세인 기혼여자의 출산자녀수율 연도별로 비교할 때에 농촌의 출산수준이 도시보다 23-33% 정도 높았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농촌의 출산수준이 도시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정도와 출산력의 관계는 명확히 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6참조>). 출산율이 높았던 1974년이나 대체수준이하로 떨어진 1987년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자들의 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수준별 출산율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즉, 1974년에 국민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집단의 출산율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집단 보다 50퍼센트나 높았으나, 이 차이는 계속 감소하지만 1980년대에도 그 차이가 35%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출산력 수준의 감소에 따라 1970년대 중반 부터 부인의 거주지별, 학력수준별 출산율의 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그 차이는 뚜렷하였다.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고학력의 부인들, 그리고 시부의 부인들의 출산수준이 저학력과 군부의 부인들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정책의 두 가지 기본 목적인 '인구규모의 억제'와 '인구자질의 향상' 중 인구규모의 억제에만 치중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때 인구 규모의 억제는 성공할지라도 인구의 자질은 오히려 낮아질 우려를 낳게 한다.

차별 출산력의 심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예로 싱가포르의 신 인구정책을 들 수 있다. 1975년에 이미 출산력의 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대졸 여자의 결혼 연기, 출산기피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84년 부터 신인구정책을 펴나가기에 이르렀다. 이 신인구정책의 배경은 대졸 어머니를 둔 자녀일 경우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을 것이고, 대학교육을 받은 자녀일 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Evans, 1987 : 2-3). 물론, 이 논리는 '대졸 부인만이 우수한 2세를 낳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유전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으나(대한가족계획협회, 1985 : 173-176), 부모와 자녀의 교육수준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고, 교육투자에 따른 비용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Evans(1987 : 3-8)의 분석이 싱가포르에서 대졸 여자의 결혼을 권장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낮은 교육수준의 부인들에게는 『두 자녀』의 제한을 강력하게 펴나가 대외경쟁력을 키운다는 정부의 신인구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결혼시 성비 불균형의 심화와 지속

1955년 이래 35년간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남·여 모두 증가하였지만 증가의 폭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훨씬 컸다. 1990년 남자의 초혼연령이 28.6세로서 1955년의 24.5세 보다 4.1년이 증가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5.1년이 증가하여 1990년의

초혼연령이 25.5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여의 결혼연령차이는 1955년에 4.1년이던 것이 1990년에는 3.1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표 7참조).

초혼연령의 연도별 증가정도를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자의 경우 1966년까지는 증가속도가 비교적 빨랐으나 그 후 1980년까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혼시기는 현저히 늦어져 1990년까지 10년 동안에 1.3년이나 늘어났다. 여자의 경우 남자와 달리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남·여간의 결혼연령의 차이는 1975년 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1975년 부터 1985년까지 차이의 감소 속도가 특히 빨라서 10년간에 0.8년이나 줄어들었다.

시부와 군부의 초혼연령을 비교하면 1966년까지는 남녀 공히 초혼연령이 시부에서 군부보다 약 2년 늦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이 차이는 급속히 줄어들었고 1985년 부터 농촌 남자의 초혼연령이 오히려 시부의 남자 초

혼연령 보다 늦어져서 1990년에는 그 차이가 0.7년이나 되었다. 여자의 경우도 농촌의 초혼연령은 상승속도가 도시 보다 현저히 빨라서 초혼연령의 차이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1966년의 차이가 2년이던 것이 1990년에는 0.4년으로 감소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들로 부터 그 동안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결혼연령이 상승하는 것은 교육수준의 향상, 도시집중과 잦은 이동,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특히 여자의 경우), 가족형태의 변화,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김유경외, 1987 : 100-110). 특히 시부의 경우는 1965년 이후 남녀 공히 결혼연령에 변화가 없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자의 초혼연령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군부에서는 남녀의 초혼연령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여자의 증가속도가 빨랐으며, 남자의 경우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혼연령이 더욱 늦어져서 시부의

Table 7. Trends of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Place of Residence and Sex, 1955-1990

Year	Whole country			Urban areas			Rural areas		
	Males	Females	Diff.	Males	Females	Diff.	Males	Females	Diff.
1955	24.5	20.4	4.1	25.5	21.5	4.0	24.3	20.1	4.2
1960	25.4	21.6	3.8	26.8	22.8	4.0	24.9	21.0	3.9
1966	26.7	22.8	3.9	27.7	24.0	3.7	26.1	22.0	4.1
1970	27.1	23.3	3.8	27.5	23.8	3.7	26.8	22.6	4.2
1975	27.4	23.6	3.8	27.6	24.2	3.4	27.1	22.9	4.2
1980	27.3	24.1	3.2	27.4	24.3	3.1	27.3	23.5	3.8
1985	27.8	24.8	3.0	27.8	25.0	2.8	27.9	24.0	3.9
1990	28.6	25.5	3.1	28.4	25.5	2.9	29.1	25.2	3.9

Sources : 1) 1955-1985: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1960-198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2) 199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평균 보다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이것은 한국동란을 거쳐 '베이비 붐'을 겪은 사회에서 결혼적령기의 남녀성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여자들의 결혼시기인 1970년대 후반 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여자 20-24세 인구 100명당 남자 25-29세 인구비인 결혼적령기의 성비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1980년에는 전국 평균이 77.6으로 극소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결혼적령기의 여자인구가 남자보다 20% 이상 많아서 적기에 결혼상대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결혼에 유리한 남자의 결혼연령의 상승은 정체된 반면 불리한 여자의 결혼연령은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의 성비가 75.7에 머무르고 있는 시부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그러나 시부에서 성비의 불균형현상은 1985년 부터 없어졌지만 젊은 여자인구의 도시집중으로 1985년 이후에는 군부에서 성비가 100을 훨씬 넘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그러므로 1985년 이후 군부 남자의 초혼연령의 상승폭이 커져서 시부의 남자 초혼연

령 보다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초혼연령의 변화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으므로 이들 요인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초혼연령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초혼연령이 1990년에 남녀 각각 28.6세와 25.5세로서 선진국의 평균초혼연령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앞으로 경제·사회적인 영향을 받아 초혼연령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므로써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과부족현상에 따른 결혼의 불리한 여건때문에 결혼연령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1960년을 전후하여 '베이비 붐' 시절에 출생한 여자의 결혼연령 상승과 군부여자의 도시이주에 따른 농촌의 성비 불균형 현상에 따른 1980년대 후반의 농촌남자의 결혼연령 상승 등이 좋은 예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아선호와 출생아수의 감소로 출생시의 성비가 116.9(1990년)에 이르렀고(통계청, 1992b), 또 출생아수가 급속히 감소

Table 8. Trends of Sex Ratios of Population at Eligible Ages for Marriage (Males: 25-29 Yrs.; Females: 20-24 Yrs.), 1970-1990

Year	Whole country	Urban areas	Rural areas
1970	89.6	84.9	92.9
1975	84.2	79.8	88.3
1980	77.6	75.7	80.1
1985	98.4	93.7	107.3
1990	103.3	100.9	114.3

Sources :1) 1970-1985: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Planning Board, *1960-198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s*. National Bureaus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2) 1990: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ro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하는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때에는 먼저 태어난 남자 (25-29세) 인구가 여자(20-24세) 인구 보다 많게 된다. 이 결과로 2010년경의 결혼적령기 남녀 성비가 128.6(통계청, 1991 : 12)이 되어 불균형이 심화될 때에는 배우자선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결혼연령은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자의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 또는 정체가 예상된다. '결혼의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남자의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미혼률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문제(예, 알콜 중독, 자살 등)가 늘어나고 사망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Kim, 1990 : 67-69참조) 인구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또한, 이 때의 출산수준은 높은 초혼연령, 미혼율의 증가(유배우율의 감소)등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장래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IV. 結論 : 새로운 인구정책의방향과 그 효과

출산수준의 급속한 하락으로 나타난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구조에 따라 노인문제와 신규노동력 공급부족, 그리고, 예상되는 인구자질의 퇴보는 인구억제정책을 조기에 성공한 나라의 경우 필연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이다. 인구정책의 효과는 장기간 후에 나타나며, 세대가 바뀔 때 따라 그 영향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과잉인구 규모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그 효과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적극적인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한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은 자녀수의 변동과 관계없이 인구증가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연령의 상향조정과 출산간격의 연장을 들 수 있다. 만약 각각의 여자가 같은 나이에 결혼하여 일생동안 2명의 여아를 갖고 60년을 산다고 한

Table 9. Hypothesized Female Population Growth under Varying Assumptions on Birth Intervals and ages at first Marriage

Age at first marriage	Length of birth interval	Years since the first female born				
		40	80	110	130	150
		Size of female population*				
15	6	3	13	25	52	101
	8	3	10	22	29	55
25	4	3	6	12	23	29
	6	3	6	11	14	24

Notes : *Estimated female population under the following assumptions:

- Every female marries at the same age and has two girls in her life.
- Life expectancy of every female is 60 years.

Source : Kim, T. H (1982) "Age at first marriage and birth intervals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1: 1-14,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p.2.

다면, <표 9>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초혼연령과 출산간격에 따라 여자인구는 크게 차이나게 된다. 즉, 25세에 결혼하여 6년 간격으로 두 명의 여아를 낳는 경우 150년이 지난 후의 여자인구 24명은 15세에 결혼한 경우의 여자인구 101명의 4분의 1이 채 못되며, 또, 4년 간격으로 2명의 딸을 낳은 경우의 29명에 비하여 5명(17%)이나 작게 된다(Kim, 1981 및 1982). 위의 예는 초혼 연령과 출산간격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이용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연령은 이미 1990년에 25세를 상회(시부: 25.5세; 군부: 25.1세)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홍문식 외, 1991: 80) 있으므로 더 높은 초혼연령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인구증가 둔화 효과는 초산의 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상쇄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1963-65년에 결혼한 부인의 33.6%가 결혼 후 1년 내에 출산한데 비하여 1975-76년에 결혼한 부인은 77.3%가 결혼 후 1년 내에 출산하였다(이홍탁, 1983: 51-52). 또한,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간격조정을 위한 피임실천율은 1985년의 경우 4.1%에 불과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피임보급은 주로 단산목적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그러므로, 같은 수의 자녀를 갖더라도 출산간격(초산부터)을 늦출 때 합계출산율을 낮추어 연령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인구증가폭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이미 과잉 상태에 있는 인구규모를 연령구조에 영향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민정책의 활용이다. 1961년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정식으로 채택된 이래 이민사업이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주요 시책으로 수행되어왔으나 그 동안 이민자수는 전체 인구의 0.1%를

하회하고 있으며,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중 인구부문에서는 1985년의 해외이민자수인 3만 9천명을 매년 유지하는 선에서 인구억제정책을 수립하였다(조사통계국, 1986).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해외 이주허가 건수는 급속히 줄어 들었으며, 1986년에 37,097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23,314명만이 이주허가를 받았으며, 이 숫자는 앞으로 2만명 정도 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48-49; 통계청, 1991: 장래인구 추계용 기초자료 참조). 그러나, 해외이민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구구조의 변동 없이 인구규모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앞으로의 출산에 의한 2차적 인구증가요인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인구증가억제효과를 배증할 수 있다. 1971년 부터 20년간 직접 이민으로 매년 약 0.1%의 인구증가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이들의 자연증가분(약 10만명)을 고려한 총인구증가 억제 효과는 동일기간의 이민자수 60만명을 포함하여 총 70만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감소한 이민자의 수가 극소하다고 할 지라도 앞으로 매년 2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민에 의한 직접 인구증가 억제효과와 자연증가에 의한 간접효과를 합한 총 억제인구규모는 1990년 부터 2000년 까지 10년간 214천명, 2020년 까지 30년간 718천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10참조).

셋째로,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의 높은 출산수준을 억제하여 전체적인 출산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인구의 『역도태 현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인구억제정책은 다만 평균출산수준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받은 여성들, 도시에 사는 여성들, 생활수준이 높은 여성들 부터 출산수준이 감소되어 왔고 또 그 성향이 지속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싱가포르 같이 선별적으로 인구장려 또는 인구억제정책을 편다는 것은 『국민의 화합』이라는

Table 10. Estimated Population Controlled by Net Migration, 1990-2020

(Unit: '000)

	Total controlled population	Net migration (direct effects)	Natural increase (indirect effects)
1990→2000 (10 years)	214	200	14
1990→2020 (30 years)	718	600	118

Source : Estimated population separately using the base data for the population projection (1990-2021)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지만, 출산억제를 위하여 출산수준이 높은 계층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면 계층간의 출산수준의 차를 극소화할 것이다. 또한 산모의 성숙, 건강, 산후회복을 고려하여 20대 또는 30대 초에서 3명 이내의 자녀를 2년 이상 터울로 출산할 때 영아 및 모성사망율이 최저가 되므로(Kim, 1990 : CH.4 참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 37-42)과 같이 모자보건 내지 가족의 행복이라는 가족계획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가족계획사업의 기본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 출산력의 최소화, 영아 및 모성사망율의 감소 등은 인구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현재 2년 미만의 출산간격을 연장하므로써 평균 출산아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증가폭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태아의 성을 식별하여 남아를 선별 출산한다고 할 때 이들의 출산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계층별 출산수준의 차이는 커질 것이다.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고, 1990년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령'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 식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생시 성비는 1991년에도 11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

청, 1992 참조). 1990년이 말때 해(경오년)이므로 실제 1990년에 출생한 일부 여아의 출생신고가 1991년에 이루어졌음(통계청, 1992년도 월별 출생신고 자료 참조)을 감안할 때 남아를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은 줄지 않았다. 그러므로,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아들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때 고학력층의 극소한 자녀수를 늘릴 수 있고, 결혼시 성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장기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와 사회에 걸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구교육의 실시이다.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방안은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비롯되는 제2차적 인구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적 제시인데 반하여 인구교육은 장차 인구변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당사자들의 인구관을 확립 내지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하겠다. 인구의 증가 규모가 급속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경 이후에는 적절한 인구의 연령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산수준이 대체수준 전후로 높아지는 출산행태가 이루어져야 연령별 인구구조에 따른 인구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자녀(2자녀 이하)를 선호하고, 남아선호가

성선택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출산수준을 낮추는 사회에서 절대인구가 감소한다하여 출산율을 대체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가치관의 변화없이는 곤란할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의 정도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 수록, 시간적으로 먼 미래일 수록 개인 각자의 관심은 낮아진다는 것이다(Meadows, et al., 1974 : 197). 여기서 국가나 사회의 가치관과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구교육을 통하여 좁혀줌으로써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그리고 먼 장래의 관심과 당장의 관심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구교육을 통하여 계층별 출산수준의 차를 줄이고, 단산 목적에만 치중하고 있는 피임 행위를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출산간격 조정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아선호 때문에 태아의 성을 식별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을 차치하고서도 성비를 왜곡시키고 출산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인구관을 갖도록 하는데 학교 인구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결한 일련의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 주변의 제 현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구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人口의 生活化』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대책들은 현재의 인구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앞으로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전망(표 3참조)에서 우리는 약 1세대 후(2021년 경)부터 절대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또 한 세대가 지날 때(2050년경) 부터 매년 1% 이상의 인구감소를 예상하였다. 이와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그 속도가 커질 때를 대비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책은 적어도 한 세대(약 30년)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2020년 부터 25-34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면(표 5참조) 늦어도 25여년 전인 1995년경 부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 현상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나타날 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어떤 현상의 변화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 보다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인구정책도 바람직한 인구규모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인구 현상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인구현상을 유도할 때 인구문제를 최소화하고,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구요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성열 (1990) 『우리나라 인력수급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최인현·정영일 (1987), '결혼력변동과 출산력',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pp. 84-134,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김태현 (1988) '우리나라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방향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청람문화』 3 : 180-194, 한국교원대학교.
- (1989), "인구현상의 변화와 인구교육", 『학교보건의 이해와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pp. 239-249.
- (1990) "차별 출산력과 경제사회개발, 1970-1986",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pp. 155-186, 한국보건사회연

- 구원.
- 대한민국정부 (199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2-1996, 경제기획원.
- 문헌상 외 (1989), 『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박래영 (1985) "장기인구성장과 노동력수급전망" 『한국인구학회지』, 8 (1) : 47-65.
- 윤종주 (1991) "우리나라 노인부양구조의 변화", 『보건사회논집』, 11 (1) : 58-81.
- 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총량부문 : 인구분야 계획(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대회 외 (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조사통계국 (198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인구부문계획』
- (1983) 『인구동태통계, 1982』
- (1985) 『인구동태통계, 1984』
- (1986) 『추계인구 : 85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한 장기 인구전망』
- (1988) 『1960-1985년 인구추계』
- 주학중 (1986) "경제적 보장과 생의 주기", 『사회보장연구 제2권』, 한국사회보장학회.
- 통계청 (1991) 『장래인구추계 (1990-2021)』
- (1992a) 『한국의 사회지표』 1992
- (1992b) 『1991 인구동태통계연보』, (1992c) 『1990 인구주택 총조사보고』 전국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1989) 『198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홍문식 외 (1991) 『2000년대를 향한 인구정책구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hoe, Ehn-Hyun, Han-Gon Kim and Sang-Young Lee (1992) "Consequence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the Republic of Korea : issues and solutions", 『Journal of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Affairs』, 12(1) : 141-159.
- Evans, David B. (1987) "Economic aspects of Singapore's selective family planning policy", *Asian and Pacific Population Forum*, 1 (4) : 1-8, Honolulu :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East-WestCenter.
- Freedman, Ronald (1986) "Policy options in Taiwan after the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 (1) : 77-100.
- Jones, E. J. (1982)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achieved fertility", WFS Comparative Studies, No. 21.
- Kim, Tai-Hun (1981) *Age at First Marriage and Fertility in Korea*, Unpublished M. A.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1982) "Age at first marriage and birth intervals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1 : 1-14,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Seoul :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no, Shigemi (1992) "The consequences of fertility decline in Japan :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Impact of Fertility Decline on Pop-*

- 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 Strategies*, pp. 61-80,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Hung-Tak and Nam-Hoon Cho(1992), "Consequences of fertility decline :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mplications in Korea", *Impact of Fertility Decline on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 Strategies*, pp. 24-44,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eadows, D. H. *etal.* (1974)*The Limits to Growth :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York : Universe Book.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 First Country Report*, Seoul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 Park, B. T. *et al.* (1979)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Seoul :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1990) "Voluntary female sterilization", Population Report Series C. No. 10.
- United Nations (1973)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 United Nations.
- Weeks, John R. (1986) *Population :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Belmont : Wodsworth Inc.

〈Abstracts〉

The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Strong Son Preference on Korean Society — On the basis of the changes of age and sex structure —

Tai-Hun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n fertility level has dropped since the 1960's and the speed of decline has accelerated in the 1980's. In the results, the growth rate reached to less than 1 percent in 1990 and will be 『0』 percent growth in 2021. The total population will increase to 50,586 thousand persons in 2021 and then will decrease.

With the rapid fertility decline the age structure of Korean population has changed : while the proportion of child population aged 0-14 is decreasing sharply, that of old-ag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recent increase of sex ratio at birth, the sex structure among the young generation has been distorted; the sex ratio at age 0-4 was as high as 112.0 in 1990. The effects of these population phenomena on Korean society are the followings :

- 1) Old age dependency ratio is increasing rapidly and continuously and will be about 40.0 from the 2050's.
- 2) Because of the rapid decline of the number of births, the absolute number of the major labour force at age 25-34 will decrease after around 2000 and then from the 2010's become less than that in 1990 .
- 3) Since the large fertility differentials by womens's educational level have continued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educational levels of mothers and children are very strong, level has dropped among higher educated women first when the average fertility level has declined in Korea, the average educational level of the children is may be expected to be relatively low and then the future productivity is will be also low, which causes the decline of 'quality of population'.
- 4) When the high sex ratio at birth (over 110 since 1986) continues, number of brides will be short by over 20 percent from the 2010s, which will bring various kinds of social problems.

Therefore, the counter measures in the concrete to relieve the heavy problems are recommended as follows :

- 1) The extension of the birth intervals, which helps to drop the population growth rate at the same level of number of children per women.
- 2) The positive supports for the out-migrants, which helps to reduce the population size without any distortion of age-sex structure.
- 3) The different supports of family planning for the higher and lower classes, which helps to reduce the gaps between different fertility levels of the classes and to keep and improve the quality of population.
- 4) Population education for both students and adults, which helps to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requirements.